김주형, 우즈 이후 26년 만에 최연소 PGA투어 3승

▲ 2022-23 PGA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주형. 사진=AFPBBNews/News1

2002년생 김주형의 기세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젊은 시절을 소환할 정도로 매섭다.

16일 '스포츠타임스'에 따르면 김주형은 전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7,255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840만 달러)을 제패했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4타로 정상에 오른 김주형은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달성한 김주형은 2022년과 2023년 10월에 열린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을 석권하며 투어 통산 3승 고지에 올랐다. 만 21세 3개월에 투어 3승을 기록한 것은 1997년 1월 우즈가 만 21세에 3승을 달성한 이후 26년 만에 나온 최연소 3승 기록이다.

김주형이 3승을 거둔 기간에 PGA 투어에서 김주형보다 많은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4승의 욘 람(스페인)이 유일하고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3승씩 거두는 등 세계 톱 랭커들밖에 없다.

아시아 선수 PGA 투어 최다승 기록도 다소 이르기는 하지만 조금씩 넘볼 수 있는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아시아 국적 선수의 PGA 투어 최다승 기록은 최경주와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의 8승이다.

김주형은 이번 우승으로 16위였던 세계 랭킹도 개인 최고인 11위로 끌어올리면서 현재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선수의 역대 최고 랭킹은 마쓰야마가 2017년에 기록한 2위다.

2018년 프로로 전향한 김주형은 어린 시절 호주, 태국, 필리핀 등에서 골프를 했고, 아시안투어를 뛴 경력 덕에 코스 적응력이 뛰어나며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한다.

2021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사상 최초의 10대 상금왕, 대상 수상 기록을 남겼고, 코로나19 때문에 2020~2022시즌이 통합 운영된 아시안투어에서도 상금왕에 등극했다. 이후 PGA 투어로 진출해 이날 만 21세 나이에 3승째를 달성하며 탄탄대로를 예고했다.

한국 축구 대승에도 바뀌지 않은 감독 향한 민심

▲ 1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전에서 첫골을 넣은 김민재와 기쁨을 나눈 후 뒤돌아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사진=연합뉴스

'클린스만호'의 2경기 연속 시원한 골 퍼레이드에도 축구팬들은 사령탑을 향한 야유와 침묵을 이어갔다. 3월 부임 후부터 계속된 외유 논란과 부실한 경기력에 따른 성토였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6-0 대승을 거두었다. 이날 한국은 전반 5분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26분 황희찬(울버햄턴)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2-0으로 앞서나갔고, 하프타임에는 박항서 전 베트남대표팀 감독과 인터뷰를 할 정도로 축제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전광판 화면에 등장한 순간만큼은 예외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 부임 후 한국에 상주하지 않고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재택근무' 논란을 낳았다. 선수 관리와 관찰, 전술 구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난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튀니지전(4-0 승)에서도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상태를 맞아 전반 무득점에 그치면서 경기력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튀니지전 킥오프 직전 선수단 소개 때 장내 아나운서가 클린스만 감독을 소개하자 축구팬들은 야유를 보냈었다.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클린스만 감독에 앞서 소개된 선수가 '캡틴' 손흥민(토트넘)이라 더욱 대조됐다.

경기가 시작되자 축구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야유 대신 침묵을 보냈다. 전반 1분과 23분 클린스만 감독의 모습이 전광판 화면에 나왔지만, 4만1,000여 관중 가운데 그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클린스만호'는 이날 경기를 끝으로 다음달 2026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경기를 치른 뒤 내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한국은 내년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을 둘러싼 논란과 경기력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 획기적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